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수출

1. 긍정적인 성적으로 마무리한 23년 수출, 눈여겨볼 변화

- 한국 12월 수출 YoY 5.1% 증가. 일평균 수출 14.5% 기록,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감률 회복.
- 12월 월간기준 미국향 수출은 112.9억 달러로 2003년 6월 이후 처음 중국(108.7억 달러)을 추월.
-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중국이 수출 1위 시장이지만, 미국과 중국향 수출 비중의 차이는 1.4%p로 크게 축소.

한국의 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 일평균 수출은 14.5%로,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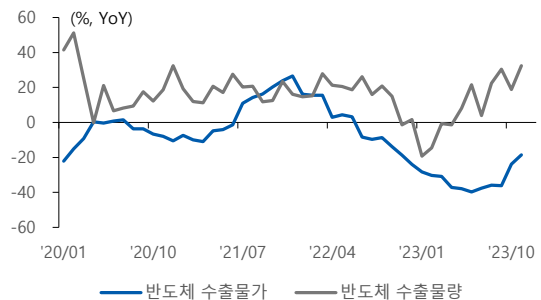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수출 회복의 중심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 올해 수출은 선진국의 IT 장비 투자, 신흥국의 IT 제품 소비로 인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제품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반도체는 수출 가격, 물량에서 빠른 회복 탄력을 보이고 있음.
-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월 저점을 기록.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110억 달러를 기록.
- 월간 100억 달러 수준을 지속한다면, 헤드라인 수출액은 1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반도체 수출물가지수, 수출물량지수의 순환 추이. 수출물가의 빠른 회복 흐름과 수출물량의 급증 확인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긍정적인 성적으로 마무리한 23년 수출, 눈여겨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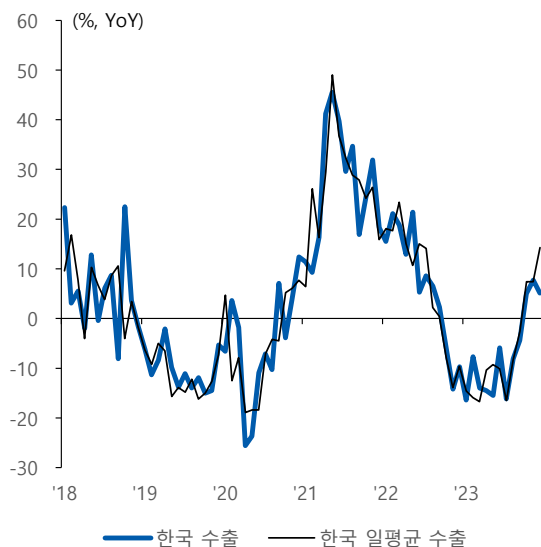
한국의 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은 14.5%로,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감률을 회복했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액 감소로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4.8억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 별로, 미국향(20.8%) 수출이 호조를 기록했고, 중국향(-2.9%) 수출도 회복 기조를 지속하였다. 또한 일본(3.7%), 인도(7.0%), ASEAN(1.7%) 등 주요 아시아 지역 수출도 호조를 기록했다.

12월 월간기준 미국향 수출은 112.9억달러로 2003년 6월 이후 처음 중국(108.7억달러)을 추월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중국이 수출 1위 시장이지만, 미국과 중국향 수출 비중의 차이는 1.4%p 수준으로 크게 축소 되었다(2020년 기준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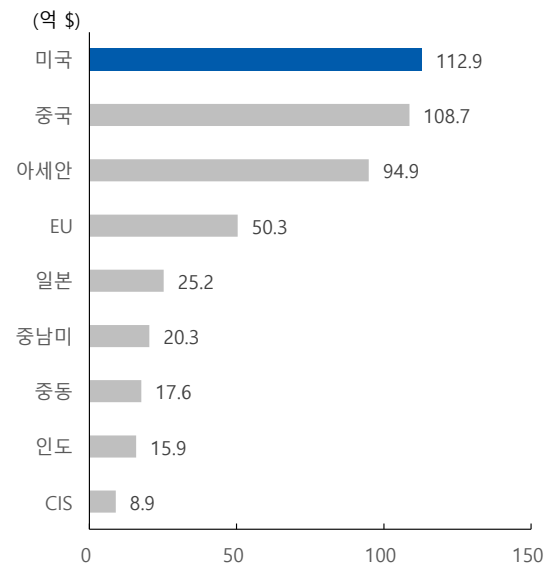
지난해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중국의 경기 부진과 더불어 중간재 자급률도 높아지면서 밸류체인이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밸류체인 변화 과정으로 인한 한국의 수출 충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1] 한국의 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 일평균 수출은 14.5%로,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미국과 아시아 주요 수출 시장에서 긍정적인 수요 확인. 중국향 수출액도 안정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 회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2. 수출 회복의 중심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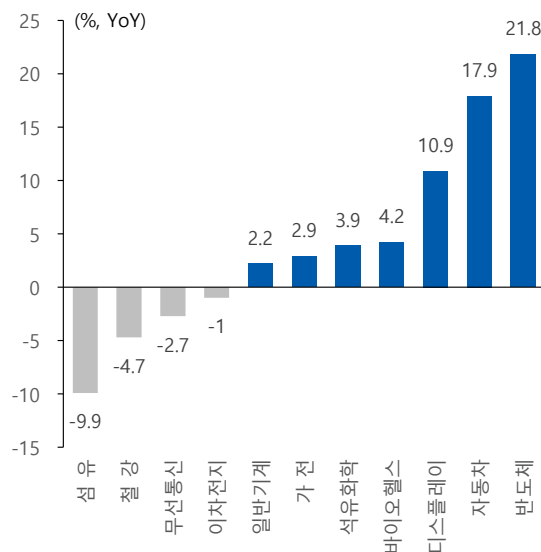
품목별로 선진국 중심의 자동차(28.4%)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반도체(32.6%)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가파른 회복이 확인되었다. 연계해서 디스플레이(20.8%)와 가전(12.1%)도 크게 증가했다.

연간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7.4% 감소로 마감했다. 그러나 올해는 2분기까지 빠르게 증가한 이후 하반기에는 10%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기준으로 11% 대 수출 증가를 전망한다.

올해 수출은 선진국 중심의 IT 장비투자와 신흥국의 IT 제품 소비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제품이 주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11월 기준이지만 특히 반도체는 수출 가격 측면이나 물량 측면에서 빠른 회복 탄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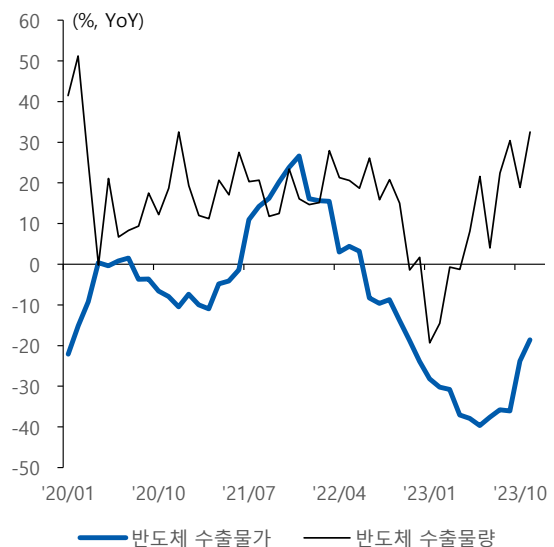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월 저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와 함께 가격과 수요 회복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기준 100억 달러 수준을 지속한다면, 헤드라인 수출액은 1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트3] 주요 품목별 수출액 증감률. 자동차가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 수출 호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반도체 수출물가지수, 수출물량지수의 순환 추이. 수출물가의 빠른 회복 흐름과 수출물량의 급증 확인.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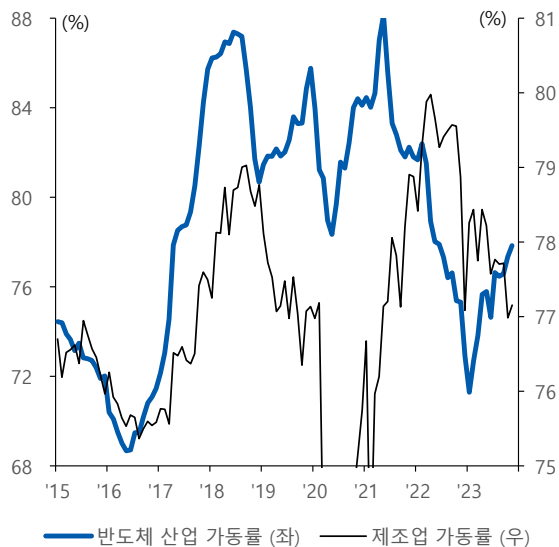
한국의 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의 경기는 저점에서 회복중인 상황이다. 아직 회복에 있어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표의 반전은 긍정적인 소식이다.

통계국 PMI 보다 중국의 중소형 제조 기업들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S&P의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8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로 확장 국면에 안착했다. 세부지수 중 생산과 신규주문이 반등하며 향후 수요에 대한 기대를 남겨두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편, 가동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가동률의 추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요와 순환 사이클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올해도 미국향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연되었던 고정투자와 AI,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IT장비 투자로 인한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2분기까지 IT 업종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차트5] 미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은 빠르게 상승.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출하 사이클은 플러스 반전에 근접.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